



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 <빨간책방>입니다.

<빨간책방> 업로드만큼이나 기다려온
설날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

저마다 길도, 시간도, 방향도 다르지만
가족을 향한 들뜨고 분주한 발걸음 소리는 아마 같을 것입니다.
가족과 함께 복을 나누고 새해를 맞는 이 시간.
행복하게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.

<빨간책방>도 맡겨둔 복을 받으며 설을 맞이할까 합니다.
그래서 조이스 캐롤 오츠의 <그들>과 함께할 159회 방송은 10일이 아닌,
설 연휴가 지난 다음 주 수요일 17일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

지루한 귀성길과 약속한 듯 찾아오는 명절 증후군을
여러분의 고속도로 메이트, 설거지 메이트 <빨간책방>과 함께 이겨내시길 바라며
품 안에 복 잔뜩 안고 새로운 방송으로 만나겠습니다.

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
감사합니다.